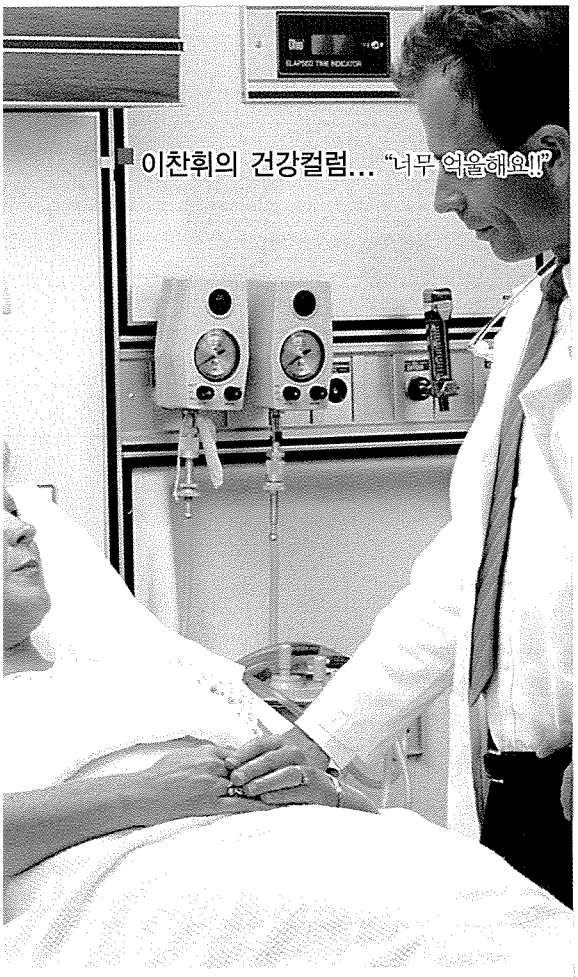

"너무 억울해요!!"

이 찬 휘
SBS 과학정보부장

그동안 많은 환자를 만나 인터뷰를 해왔지만 지난주에는 아주 특별한 여성을 만났다. 이 여성은 인터뷰하는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하도 많이 울어서 이젠 눈물이 마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나온다고 하면서 쉴 새 없이 눈물을 보이며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지난 10년 동안 수천 건의 환자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나도 울음을 참기가 어려웠다.

38세의 이 여성은 7살과 10살 아이를 둔 아이 엄마였다. 6개월 전부터 어깨가 자꾸 쑤시고 가끔 가슴에 뜨끔거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기침이 잦아지고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기에 깜짝 놀라 병원을 찾았다.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처참하게도 이미 폐암 말기 환자가 되어 폐뿐 아니라 척추 뼈와 다른 장기로도 암이 전이되어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였다.

청천벽력과 같은 폐암 말기 선고로 평범한 주부였던 환자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시한부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생명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린 자식 둘을 두고 가야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환자에게 어떤 말로라도 위로를 해야 하는데 참담한 환자의 심정을 인터뷰해야 하는 나는 환자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평생을 살면서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었단다. 특히 남편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인데, 자신이 도대체 왜 폐암에 걸렸는지, '너무 억울하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30년 전 자신이 어릴 때 친정아버지께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이 여성을 폐암 말기 환자로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지금은 아버지들이 집 안이나 가족들 앞에서는 담배를 잘 피우지 않고 밖으로 나가 피우지만(간접흡연에 대한 무서움이 드러난 이후) 멀지 않은 옛날, 불과 20~30년 전에는 대부분의 아버지가

집 안에서 가족들 옆에서 그냥 담배를 피웠다.

그런데 문제는 세포들이 마구 분화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마셨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여린 세포가 담배의 나쁜 성분과 접촉하자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됐고 결국 30년이 지나 암으로 변한 것이다.

실제로 폐암 전문의들은 최근 30대~40대 여성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조사를 해보니 80~90%의 여성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고 그 여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특히 여성 폐암 환자들은 대부분 손을 쓰기 너무 늦은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성 환자들은 담배를 피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깨가 쑤시고 가슴이 답답해도 자신이 폐암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아파 병원을 찾으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말기로 병이 깊어진 뒤라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걸리는 폐암은 폐포 끝 부분에서 암이 시작되는 선암으로 일반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발견이 되지 않아 정기 검진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라 여성 폐암이 대부분 말기에 발견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문의들은 30~40대 여성들에게 한 번쯤 '저선량 CT'를 찍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30~40년 전 자신이 어릴 때 집 안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다면 자신은 폐암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한 번쯤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한다. 요즘은 폐암도 이르게만 발견해 치료한다면 5년 이상 살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으로 크게 향상됐다.

지금도 혹시 별생각 없이 집 안에서 혹은 어린 자식들과 아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들이 있을까? 자식과 아내가 그렇게 미울까? 자식과 아내를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겠는가?